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1년도 제33호

### 서울특별시체육회 블로그

**거의? 아직! 그리고 슷컷은 없다**

정반서강대학교 교수

### 도쿄패럴림픽

**연대와 희망 외친 13일 열전 폐막**

김종윤 SBS 기자

**정진완 장애인체육회장 “숙제 더 많아졌다...스포츠 과학 지원 필요”**

황규인 동아일보 기자

**도쿄패럴림픽 중계 보도량 올림픽 대비 10분의 1**

정민경 미디어오늘 기자

### 여성 스포츠 인권

**탈레반 “여자는 스포츠 하지마...경기하다 얼굴·몸 보일 수도”**

이지예 뉴시스 기자

**슷컷 논란, 그리고 스포츠 속 성차별**

박교연 '페이지터너' 활동가

### 체육시민연대 Cnet포럼 안내

2021년 9월 24일(금) 오후 4시

주제 : 팬데믹 체육인 고용실태와 문제점

### 왜 스포츠청을 설립해야 하는가? 포럼

2021년 9월 14일(화) 14:00~16:00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스포츠는  
인권이다

# 체육시민연대

## CNet 포럼

주제

### 팬데믹 체육인 고용실태와 문제점

○ 일시 : 9/24(금), 오후 4시 ~

○ 방식 : 실시간 온라인(ZOOM, YouTube)

◇ 사회

홍덕기 |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발제

정현우 | 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원

◇ 토론

여준형 | 젊은빙상인연대 대표

김희진 | 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

양민석 |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문의 : 02)2279-8999 / sports-cm@hanmail.net

제1차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포럼

# 왜 스포츠청을 설립해야 하는가?



일 시 | 2021년 9월 14일 (화) 14:00~16:00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스엠타워) 휴로인터랙티브 Studio  
링크주소 : <https://ssu-ac-kr.zoom.us/j/89525978577>  
포럼 ID: 895 2597 8577

운 영 | 대면 및 비대면 혼합방식

주 최 |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

딥 다이브 - 2

# 거의? 아직! 그리고 슛컷은 없다

무려 125년 걸렸다. '거의' 반이 되기까지.  
정확히는 '거의(almost)' 49%다. 말하자면 '아직' 반도 아니다.  
마치 굉장한 일이 벌어진 양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최초의 성-균형(gender-balanced) 올림픽이라고 자찬했다.  
과연 그럴까?

글 · 정반



## 125년의 관성

숫자만 보면 그럴듯하다. 우선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여성 선수의 비율은 거의 반이다. 이 수치는 2016년 리우올림픽의 45.6%, 2012년 런던올림픽의 44.2%와 비교하면 완만한 상승세다. 리우올림픽에 비해 혼성 종목(mixed events)이 늘어난 까닭도 있다. 아홉 종목이 늘어 도쿄에서는 모두 18개의 혼성 종목이 열렸다. 수영에서 여자 1500m 자유형과 혼계영 4x100m 경기가 새로 생겼고 육상, 사격, 양궁 등에서도 혼성 경기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른바 '스�컷 사태'의 주인공 안산 선수가 첫 금메달을 딴 종목이 바로 양궁에 처음 생긴 혼성 종목이다. 새로 추가된 종목인 스케이트보드, 서핑, 가라테, 클라이밍에는 애초 참가 선수의 성비가 같도록 맞췄다. 새로 생기는 종목의 기본값이 여성 남성 반반이라는 건 상징적인 변화다. 경기장 밖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대부분 남성) 한 명이 들고 등장하던 개막식 기수를 이번에는 여성 선수 1명과 남성 선수 1명이 들도록 지침을 바꿨다. 배구의 김연경과 수영의 황선우(둘 중 한 명이 들어야 했다면 누구였을지 상상하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아마 '브레드'를 좋아하시는 그 언니?)가 각각 태극기를 들고 함께 입장한 배경이다. 바뀐 지침으로 인해 중국과 몽골 같은 나라에서는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비록 남성과 함께였지만) 자국 국기를 들고 개막식에 입장하게 되었다.

다음 장 계속

여성 선수의 숫자가 단순히 남성과 비슷해졌다고, 여성이 참가하는 종목이 조금 늘어났다고, 도쿄올림픽을 성 평등 올림픽을 실현한 첫 올림픽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진정한 의미의 젠더 균형에 도달하려면, 조금 과장하자면 여성 선수가 남성 선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참가하거나 125년 정도 지나야 하지 않을까? 겉으로 드러난 수치(number가 아닌 shame으로 해석해도 의미가 통하는 아이러니!)만으로 성 평등 올림픽을 주장하기에 왠지 미심쩍다. 125년 묵은 남성 우월의 관성이 올림픽 안에 여전하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참여는 물론 관람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고대 올림픽은 차치하더라도 최초의 근대 올림픽인 1896년 아테네올림픽에는 단 한 명의 여성 선수도 참가할 수 없었다.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이것도 상당히 문제적인 용어다. 그럼 근대 올림픽의 어머니는 누구인가?)라 추앙받는 쿠베르탱 남작이 여성의 올림픽 참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 아버지는 올림픽에서 여성의 역할은 남성들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는 것이라고 했단다. 그다음 올림픽에서야 다섯 종목에 스물두 명의 여성 선수가 참가했지만 975명의 남성 선수에 비하면 약 2%에 불과했다. 그 후 약 반 세기가량 여성 선수의 비율은 10% 정도에 머물렀고, 여성이 올림픽 전 종목에 참여하게 된 것도 고작 2012년 런던올림픽에 이르러서다. 그러고 보니 IOC가 올림픽 참가 선수의 성비를 50%로 하겠다고 선언한 해가 겨우 7년 전인 2014년이다. 제로였던 여성 선수 비율이 '거의' 반이 되기까지 긴 세월이 걸렸다.

## 여정, 그리고 쟁취

진정한 성 평등 올림픽은 기계적인 수치의 균형으로 완성될 리가 없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근대 올림픽의 근저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여성 차별 문화와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 쟁취된다. 노르웨이 여자 비치핸드볼팀은 비키니 수영복을 거부하고 반바지를 입고 경기를 뛰었다. 그게 더 편하다는 당연한 이유다. 그 결과 협회 규정상 벌금을 물어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남자 비치핸드볼 선수의 유니폼은? 규정상 물론 반바지다.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독일 여자 기계체조 대표팀은 원피스 수영복 형태의 전통적인 유니폼을 거부하고 전신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했다. 여성 선수들이 스스로 성적 대상화를 거부하고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고 실행한 기념비적 사건이다. 같은 체조 종목에서 또 다른 여성 선수의 목소리가 특별했다. 미국 여자 체조 간판 스타인 시몬 바일스는 경기를 앞두고 기권했다. 이유는 '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였다. 바일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세계의 무게가 내 어깨에 얹힌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예상치 못한 포기 선언에 대중은 따뜻한 응원을 보냈다. 심지어 올림픽 후원사인 비자(visa)는 이 결정을 '놀랍고도 용감한 결정'이라고 칭송했다.

여성 선수들의 당당한 목소리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중의 우호적인 반응과는 달리 양궁 3관왕 안산 선수에게는 난데없는 숏컷 논란이 일어났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가 아니냐는 댓글이 올라왔고 순식간에 여성 혐오로 번지더니 급기야 안산 선수의 금메달을 박탈해야 한다는 황당한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 시대착오적인 백래시(backlash: 반발)는 성평등 올림픽을 향한 여정이 아직도 멀다는, 그리고 그곳에 이르는 지름길(숏컷)은 없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돌아보면 지난 125년의 여정도 역시 길고 지루했다. 숏컷은커녕 멀리 둘러가는 롱컷(long-cut)으로 점철된 길이였다. 완전한 성 평등 올림픽을 향한 길에 질러가는 길, 숏컷은 없다. 지루하지만 도달할 곳을 잊지 않고 꾸준히 발을 옮겨 다다를 수 있는 롱컷만 있을 뿐이다. 글을 마치고 서점에 들렀다가 시의적절한 소설을 만났다. <숏컷>의 마지막 문장을 옮겨본다.

*“전사는 싸우기 전에 투구를 닦는다던데 난 전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미용실에 한 번 더 갈 예정이다. 숏컷은 어중간하게 길면 지저분한 게 흠이다. 한 번만 더 잘라야겠다. 싹박한 숏컷으로.”* (박하령, 숏컷, 2021, 71쪽)

남은 21세기 여성 선수들의 건투를 빈다.

---

글을 쓴 정반(a.k.a. 정용철)은 주로 서강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가끔 선수들을 만나 마음을 다독인다. '배워서 남 주자'라는 모토로 텐션 높은 삶을 살다가 최근 완전 소진됨. 공방을 드나들며 나무를 통해 다시 채우고 있다. 부캐인 정반(鄭反, Ban Chung)을 밀고 있다/

# [도쿄패럴림픽]

## 연대와 희망 외친 13일 열전 폐막

연대와 희망, 도전으로 빛난 2020 도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13일의 열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24일 개막한 도쿄 패럴림픽은 5일 오후 8시 일본 도쿄 신주쿠의 국립경기장(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당초 지난해 치러질 계획이던 이번 패럴림픽은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림픽과 함께 1년 연기돼 치러졌습니다.

경기가 무관중 원칙으로 진행되면서 대회는 다소 조용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지만, 난민팀을 포함해 163개국 4천400여 명의 선수들이 투혼을 펼쳤습니다. 탈레반의 정권 장악으로 출전이 불발될 뻔한 아프가니스탄 대표팀도 극적으로 대회에 나오면서 참가국은 162개국에서 163개국으로 늘었습니다.

폐회식 주제는 '조화로운 불협화음'(Harmonious Cacophony)으로, '다름이 빛나는 도시'(A City Where Differences Shine)의 콘셉트를 선보였습니다. 다양성을 강조한 대회 조직위원회는 "처음에는 불협화음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새로운 조화의 탄생이다.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의미한다"고 의미를 뒀습니다. 개회식과 마찬가지로 관중이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키시노 노미야 후미히토 왕세제와 앤드루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일본 히라가나 순서에 따라 80번째로 입장했습니다. 주원홍 선수단장을 포함해 24명의 선수단이 폐회식에 참석했고, 기수는 보치아 페어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정호원(35·강원도장애인체육회)이 맡았습니다. 경기 일정이 끝나면 48시간 이내에 귀국해야 하는 대회 규정에 따라 대다수의 선수단은 귀국한 상태입니다.

이번 대회 14개 종목에 159명(선수 86명·임원 73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로 종합순위 41위를 기록했습니다. 종합 1위는 중국(금 96개·은 60개·동 51개)이 차지했고, 개최국 일본은 11위(금 13개·은 15개·동 23개)를 기록했습니다. 선수단 입장에 이어 '아임파서블 어워드'(I'm Possible Award)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도쿄 패럴림픽부터는 대회 최우수선수상(MVP) 격인 '황연대 성취상'을 시상하지 않습니다. 황연대 성취상은 국내 장애인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세계 장애인 스포츠에서 상징적인상이었습니다. 소아마비를 겪던 여성 의사 황연대(83) 여사가 1988년 서울하계패럴림픽 때 국내 언론으로부터 수상한 '오늘의 여성상' 상금을 IPC에 쾌척하면서 제정된 상으로, IPC는 이후 동·하계 패럴림픽마다 패럴림픽 정신을 가장 잘 구현했다고 평가하는 남녀 선수에게 이 상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IPC는 집행위원회에서 황연대 성취상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황연대 성취상 위원회는 평창 패럴림픽 이후 황연대 여사의 건강이 악화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이번 대회에는 '아임파서블 어워드' 상을 도입했습니다. IPC의 '아임파서블' 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잘 이수한 일본 학교 2개와 해외 학교 1개, 그리고 패럴림픽 남녀 선수 1명씩이 상을 받았습니다. 남자 선수로는 잠비아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육상 선수 출신 라삼 카통고(잠비아)가, 여자 선수는 2006년 토리노 동계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2관왕인 카타르지나 로고비치(폴란드)가 선정됐고, 이 둘은 장애인 체육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최고의 개최국 학교상은 키사라즈 시립 키요미다이 초등학교가, 우수 개최국 학교상은 지바현 토가네 특수교육학교가 받았고, 최고의 해외 학교상은 말라위의 릴동웨 LEA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패럴림픽기는 2024년 다음 대회를 개최하는 프랑스의 파리 시장에게 전달됐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펄럭인 깃발을 파슨스 IPC 위원장이 받았고, 뒤이어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이 깃발을 건네받았고, 밝게 타올랐던 성화가 꺼지며 도쿄 패럴림픽 대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 정진완 장애인체육회장 “숙제 더 많아졌다...스포츠과학 지원 필요”

“많은 이들이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은 참여 자체로 아름답다고 한다. 내 생각은 다르다. 스포츠인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 한계를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모습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4일 일본 도쿄 미나토쿠(港区) 베이사이드 호텔 아주르 다케시바(竹芝)에 자리한 ‘코리아 하우스’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공동취재단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은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장애인 체육 행정가다. 2012~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으로 장애인 체육 정책을 이끌었고, 도쿄 패럴림픽을 앞두고 2017년부터 이천선수촌장으로 후배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이끌던 중 2월 26일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 취임했다.

회장이 된 후 처음 나선 도쿄 패럴림픽 성적표는 기대 이하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9개, 동메달 21개 종합순위 20위를 목표 삼았지만 금메달 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를 기록해 종합 41위에 그쳤다.

이제 성적이 전부인 세상은 아지만 메달리스트 출신 첫 장애인체육 수장으로서 정 회장은 태극 마크의 무게감을 통감했다. “내가 왜 회장이 됐나, 장애인 체육과 후배들을 위해 한국에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했다. 숙제가 더 많아졌다”고 했다.

정 회장은 “그동안 대한체육회, 비장애인 시스템을 막연하게 따라간 부분이 있다”고 돌아보면서 “제 결론은 선택과 집중이다. 훈련 시스템, 신인 선발 시스템, 전임 지도자 문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주원홍 선수단장(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장), 탁구 대표 주영대, 태권도 대표 주정훈, 이현옥 총감독(왼쪽부터). 도쿄=패럴림픽사진공동취재단

다음 장 계속



정 회장이 취임 후 가장 관심을 쏟은 분야는 ‘스포츠 과학’이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체계적인 스포츠 과학 뒷받침 없이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메달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스포츠 과학 지원은 걸음마 단계다. 현재 이천선수촌의 현장 지원 인력도 계약직 연구원 2명뿐”이라고 전한 정 회장은 “장애인체육엔 스포츠 등급이 있다. 그 등급에 맞춰서 선수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과학적이고 세분화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등급과 종목에 맞는 장비 연구 및 개발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휠체어테니스 대표 임호원(23·스포츠토토)도 휠체어 바스켓을 교체한 뒤 서브가 달라졌다. 허리에 힘을 쓸 수 있게 장비를 교체한 덕분이다. 사격 스프링, 탁구 선수들 휠체어 높이 등도 장애 유형과 종목, 등급에 맞게 연구, 개발해 최상의 경기력을 내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내년부터 체육회 내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정규직 연구원 3명을 받았다. 스포츠 과학 예산이 확보된다면 국가대표 훈련 예산과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해 2024 파리 대회, 2028 로스앤젤레스(LA) 대회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3년 앞으로 다가온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서는 도쿄에서 패기만만한 플레이로 가능성을 입증한 ‘젊은 피’와 2018년부터 꾸준히 추진한 기초 종목 육성 사업 결실에 희망을 걸고 있다.

정 회장은 “이번 대회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2018년부터 기초 종목 육성 사업을 통해 발굴한 배드민턴 국가대표 유수영(19), 정겨울(18) 등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고 있다. 휠체어육상에도 현재 유망주 10여 명이 훈련 중이다. 이번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탁구 윤지유(21·성남시청), 김현욱(26·울산장애인체육회), 태권도 주정훈(27·SK에코플랜트), 휠체어테니스 임호원 등 차세대 선수들의 발견도 긍정적이다. 이들을 적극 지원해 향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 학교체육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에 정 회장은 공감했다. 그러면서 그저 말뿐이 아닌 장애인 이동권, 접근성이 반영된 실질적 장애인 생활 체육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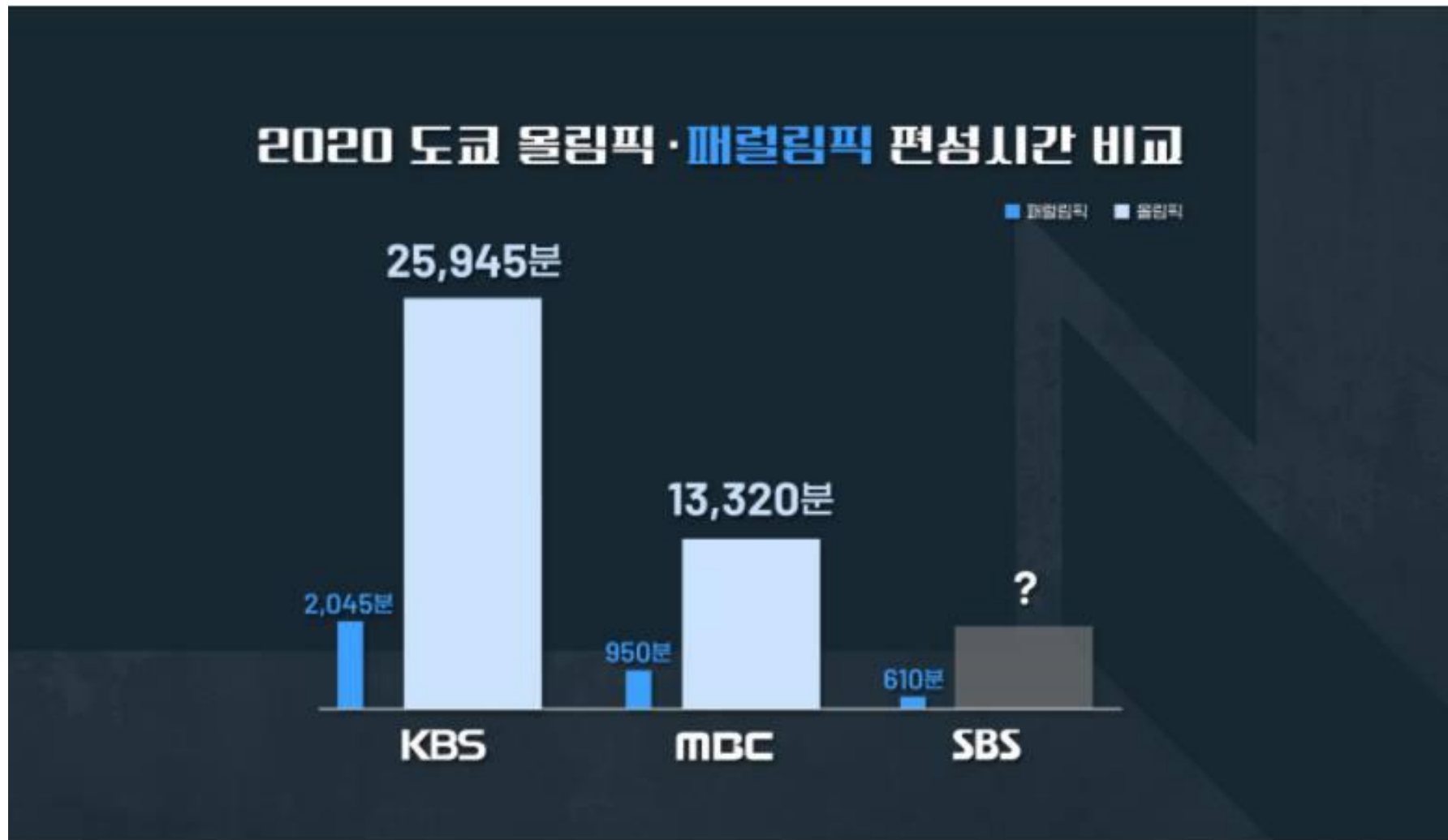
정 회장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이 263만 명이다. 이중 절반 이상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한다”면서 “(장애인 체육센터인) 반다비체육관은 시군구 각 1곳씩 선정해 30억원을 지원하는데 서울 도심이나 수도권에 이 돈으로 체육시설을 짓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일수록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생활체육 지도자 2000명도 월급 192만원에 세금 떼면 겨우 154만원을 받는다. 최소 급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도자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이 부분도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05/109102978/1>



# 도쿄 패럴림픽 중계·보도량 올림픽 대비 10분의 1



5일 2020 도쿄 패럴림픽이 폐막한다. 패럴림픽에 대한 중계가 희소했고 보도량이 적은 문제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표현을 쓴 보도들도 여전했다.

이날 패럴림픽 폐막식은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중계하지만 패럴림픽 중계나 보도량은 2020 도쿄 올림픽과 비교해 현저하게 적었다. 도쿄올림픽 중계는 같은 재방송도 많았지만 패럴림픽 중계는 KBS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KBS가 공개한 도쿄 올림픽 편성시간과 패럴림픽 편성시간 비교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의 경우 KBS는 25945분, MBC는 13320분을 내보냈다. 패럴림픽의 경우 KBS는 2045분, MBC는 950분을 편성했다. SBS는 도쿄올림픽 편성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고 패럴림픽 편성 시간은 610분이었다. KBS나 MBC의 경우 도쿄올림픽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중계한 것이다.

뉴스 보도량 차이도 컸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에 따르면 올해 '패럴림픽' 보도는 총 2466건이었다.(5일 오후 기준) '도쿄 패럴림픽'으로 검색하면 총 보도량은 2145건이었다. '도쿄올림픽'의 올해 총 보도량은 1만9509건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이다.

빅카인즈에 검색되는 54개 언론사 중 100건 이상의 패럴림픽 보도를 한 것은 한국일보(107건), 국민일보(111건), 헤럴드경제(113건), YTN(114건), 아시아경제(126건), 서울신문(138건), 세계일보(141건), 중앙일보(164건), 동아일보(167건), 조선일보(172건)였다.

방송사 보도량을 살펴보면 KBS 64건, MBC 55건, OBS 7건, SBS 59건, YTN 114건이었다. '도쿄올림픽' 보도량은 KBS 203건, MBC 205건, OBS 143건, SBS 190건, YTN 1137건이었다. 패럴림픽 보도량과 도쿄올림픽 보도량을 살펴보면 OBS는 도쿄올림픽 양보다 20분의 1, YTN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도량이다.

“장애를 뛰어넘고”, “장애를 딛고” 등 장애를 뛰어넘거나 딛고 일어서야 할 대상으로 보도하거나, 신체 부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보도들도 여전했다.

다음 장 계속

###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도장깨기 최승원, 장애 극복 월클 테너의 인생사”(스포츠경향), “아프간 육상대표 장애도, 국경도, 정치도 뛰어넘어 날았다”(스포츠조선)과 같은 기사 제목은 여전히 장애를 뛰어넘거나 딛고 일어서야 할 것으로 보이게 한다.

지난 8월24일 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가 “패럴림픽 메달리스트, 장애 극복한 것 아니라 노력으로 얻은 결과”라는 제목과 비교되는 제목이다.

이 기사에서 서인환 장애칼럼니스트는 “은빛 총성을 울린 김민정은 시력이 0.3이라고 보도했다. 시각장애인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장애를 가진 것이 강조되면서 무단한 노력으로 극복한 이미지로 표현했다”며 “틀린 말은 아니다. 많은 불편함이 있음에도 최대한 시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 적응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메달리스트들의 장애보다는 노력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외에도 장애인의 신체부위를 부각하는 보도들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팔이 없으면 입으로, 이것이 패럴림픽”, “다리를 못써도 우리의 바퀴는 멈추지 않는다”, “세계 유일 손발 없는 펜싱 선수, 패럴림픽 2연패”와 같은 제목을 사용했다. KBS의 경우도 “입으로 날린 감동 스매싱, 양팔없는 하마드투의 도전”같은 제목을 썼다.

SBS의 캐스터가 휠체어 농구 남자 예선 A조 경기에서 “이 선수들은 정말 힘든 고비를 이겨낸 선수들”이라고 말하자 임찬규 해설위원(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장애를 보시지 마시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봄으로 인해서 이 패럴림픽의 의미가 더 가치 있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 가운데 ‘제3장 장애인 인권’에는 언론이 장애 인권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권고하고 있다. 이 보도준칙에는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라는 준칙도 있다. “장애인 선수인데 대단하다”, “영웅이다”라는 식의 보도나 수식 역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보도준칙에는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돼있으며 특히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탈레반 “여자는 스포츠 하지마... 경기하다 얼굴·몸 보일 수도”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여성의 스포츠 경기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탈레반 문화위원회 아마둘라 와시크 부대표는 8일(현지시간) 호주 SBS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여성에게 스포츠는 부적절하며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와시크 부대표는 크리켓 경기를 예로 들어 "여성의 얼굴과 몸이 가려지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슬람은 여성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미디어 시대로 사진과 영상이 있다. 사람들이 이것들을 본다"면서 "이슬람과 이슬람 토후국은 여성이 크리켓이나 스포츠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프간에서는 크리켓이 인기 있는 스포츠다. 탈레반은 남자 크리켓 대표팀의 경우 연말 호주에서 열리는 시험경기 참가를 승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탈레반은 지난달 중순 미군 철수를 틈타 아프간 정권을 탈환했다. 이들이 엄격한 이슬람법을 따르는 '이슬람 토후국' 건설을 선포하면서 여성 인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간 탈레반은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고 폭력 행위를 일삼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탈레반은 새로운 교육 규정을 마련해 여대생들이 니캅, 아바야 등을 착용해 눈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도록 했다. 과도정부를 짜면서도 내각에 여성은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다.



## 숏컷 논란, 그리고 스포츠 속 성차별

지난 7월 30일 안산 선수는 한국 하계올림픽 최초로 단일대회 3관왕을 차지하며 스포츠 역사를 새롭게 썼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안산 선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 질문이 아닌 '숏컷 논란'이었다. 이미 안산 선수는 금메달 2관왕을 달성했을 때 본인의 SNS 계정에서 숏컷을 하는 이유에 대해 "그게 편하니까요"라고 답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질문은 질문으로 그치지 않았고, 온라인상에서는 안산 선수를 필두로 숏컷을 한 여성 전반에 대한 비난이 확산됐다.

여성에게 특정 헤어스타일을 강요하는 게 황당하지만, "숏컷하면 높은 확률로 페미니스트다. 따라서 숏컷한 여성은 걸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남초사이트를 중심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로 트위터에서는 '#여성\_숏컷\_캠페인' 해시태그 운동이 등장했고, 7월 25일 캠페인 운동이 시작한지 반나절 만에 6천개 이상의 트윗이 올라왔다. 아직도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은 숏컷 지지선언과 함께 자신의 숏컷 사진을 덧붙이며 호응하고 있다.

칼럼리스트 위근우는 이번 숏컷 논란에 대해 "아무리 혐오 정서라도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는 목소리는 공론장에서 귀 기울이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안일한 소리를 하던 사람들" 덕분이라는 평을 남겼다. 덧붙여 GS25 사건을 언급하며 "답해줘선 안 될 일에 답하고 사과한 탓에 뭐가 됐든 자기네 말을 들어줄 거란 효능감에 취한 혐오주의자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이것이 "올림픽 영웅에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여성혐오 테러로까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영국 BBC도 8월 9일 '숏컷 논란'이 GS25의 '손가락 논란'과 연결점이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기업의 공개 사과 때문에 배후에 있던 이들이 대담해져 공세가 숏컷 논란으로까지 확산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BBC는 이번 논쟁에 가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남성이지만, 나이든 남성과 일부 여성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은 여성의 성공이 남성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신조를 지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들 주장과 다르게 BBC는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임금불평등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의 여성임금은 남성의 63%에 불과하고, 선진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8월 12일 방송된 KBS <다큐멘터리 국가대표>는 스포츠 판도를 바꾼 여성 스포츠 선수 6명을 다뤘다. 도쿄올림픽이 끝난 후 방영된 방송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달성했으며, 스포츠 속 성차별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다. <국가대표>는 2020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 지도자 성별을 인용한다. 남자 2만2213명, 여자 4386명. "여자 핸드볼이 메달을 더 많이 땀는데, 여자 지도자는 없나요?"라는 질문에 핸드볼 국가대표 김은아 선수는 자신도 같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한다. "지금 핸드볼 실업팀에서는 남자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고, 여성 지도자의 길이 좁아요. '왜 메달리스트 언니들이 지도를 안 할까? 자리가 없는 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차이가 나는 건 지도자 수만이 아니다. 같은 종목에서 똑같이 활약을 해도 대부분의 여자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보다 더 적은 연봉과 지원을 받는다. 한국 골프를 상징하는 박세리 국가대표팀 감독은 골프투어 상금의 남녀격차를 꼬집었고, 김연경 선수는 남자 선수들에겐 꾸준히 인상되었던 샐러리캡이 여자 선수들에게만 동결된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차별의 뿌리에는 '선수'이기 전에 '여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 EQUAL PLAY

# EQUAL PAY

동 일 경 기

동 일 임 금

<국가대표>는 2016년 리우올림픽 중계 영상을 인용한다. 결혼과 비슷한 시기에 성적이 향상된 수영선수의 플레이를 보며, 해설진은 “코치인 남편과의 사랑의 힘”이 아니겠냐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선수의 피나는 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남성 조력자가 도운 결과라고 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비단 해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식적인 스포츠 단체조차 성차별이 정당하다는 입장문을 거침없이 발표한다. 2015, 2019월드컵에서 연이어 우승한 미국 여자축구 대표 선수들은 성별 임금격차에 따른 손해배상액 6천600만 달러(804억 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6월에 미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으며, 뒤이어 미국축구연맹은 남녀대표팀의 임금 격차는 “성차별이 아닌 과학”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남녀 대표선수에게 요구되는 신체적, 기술적 역량의 격차가 크고 시장 규모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기에 임금격차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반대의 경우에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대표> 속 스포츠 선수들이 증언했듯이 여자 스포츠팀이 남자 스포츠팀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더 많은 관객유치에 성공해도 임금 역차별은 발생하지 않는다. 스포츠계 입지적 인물인 김연경도, 박세리도 모두 남자 선수보다 낮은 연봉과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임금차별은 선수들의 사기와 투자를 깎아먹는다. 2005년 윌블던 여자 단식에서 우승했던 비너스 윌리엄스는 한 인터뷰에서 “윌블던은 내게 ‘넌 그저 2위 챔피언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행히 2007년을 마지막으로 윌블던은 남녀상금을 차별 없이 지급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닌 선수들의 피나는 투쟁의 결과물이었다. 1970년 테니스 슈퍼스타였던 빌리 진 킹은 처음으로 스포츠 속 임금차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대회에서 그가 받은 상금은 고작해야 600달러였지만, 같은 대회의 남자 단식 우승자는 3,500달러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두들 여자가 단순히 케이크 부스러기 정도 되어야 좋다고 생각지만, 나는 여자들이 케이크 가장 위에 올라간 체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차별 파문은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성 대결’로 이어졌다. 1973년 윌블던에서 빌리 진 킹과 바비 리크스의 ‘성 대결’이 펼쳐졌고, 빌리 진 킹은 바비 리크스를 세트스코어 2-1로 완파하고 남자 단식 선수의 우승 상금을 거머쥐었다. 당시 남자 선수의 우승 상금이 여성 선수보다 8배 가까이 높았기에 더욱 값진 승리였다. 하지만 모든 종목의 임금차별을 테니스처럼 ‘성 대결’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스포츠선수를 독려하는 상금과 지원이 성적에 따라 차등 분배되는 것도 옳은 방향이 아니다.

스포츠는 세간의 시선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연속이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묵묵하게 고된 연습을 해온 선수들의 멋진 퍼포먼스를 보며 대중은 삶에 대한 영감과 투자를 얻는다. 인류의 한계에 대한 도전에 성차별은 불필요하다. 더 이상 양궁 3관왕이라는 경이로운 성취를 거뒀음에도 머리 스타일을 근거로 온라인 폭력에 시달려야 했던 안산 선수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문제는 슛컷이 아니라 성차별이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인권탄압' 중국의 베이징올림픽, 중계없이 치러질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621755>

체육계, 스포츠廳 설립 위해 본격 시동...14일 안양서 1차 포럼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0493>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된 e스포츠, 8개 게임에서 금메달 레이스 펼친다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09130100090840005821&servicedate=20210912>

디지털 혁신을 통한 팬 경험의 개인화...한국프로스포츠가 살길이다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9111258003&sec\\_id=530101&pt=nv](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9111258003&sec_id=530101&pt=nv)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국가대표 선수단 코치들 한목소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10/109197488/1>

'중앙종목경기단체의 공정한 윤리문제 대처를 위한 제도 및 규정 보완이 필요해'...대한하키협회 이상현

회장, 대한체육회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 만나 의견 전달

[http://www.maniareport.com/view.php?ud=20210906201929566918e70538d2\\_19](http://www.maniareport.com/view.php?ud=20210906201929566918e70538d2_19)

'문 닫힌' 북한 스포츠, 도쿄 올림픽부터 연이은 불참...국제교류 차단

<https://www.news1.kr/articles/?4429465>

연구 기금 끊길라...가상 스포츠 행사로 눈 돌리는 호주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103385/N>

스포츠토토 제4차 온라인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전개

<http://mksports.co.kr/view/2021/862041/>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